

# 영아의 기질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의 유형 및 전이 양상: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Types and Changes in Adjustment Patterns to Childcare Centers Based on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s: A Latent Profile Analysis

박설희<sup>1</sup> 신나리<sup>2</sup>

Seolhui Park<sup>1</sup> Nary Shin<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identify how infants and toddlers adjust to childcare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and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ir temperament on this adjustment.

**Methods:** Two surveys were conducted with 315 mothers and 134 teachers of infants and toddlers. Data from two rounds of teacher-reported assessments on infants' and toddlers' adjustment to childcare were analyzed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LPA) to examine change patterns and influencing factors.

**Results:** Three types of adjustment to childcare were identified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and two types were identified in the late middle. As the semester progressed, the most common transition was from the initial adaptive type to the later adaptive group. Children's temperament partially influenced the changes in adjustment patterns among infants and toddlers in childcare centers.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may be beneficial to take children's temperaments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orientation programs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ir adjustment to childcare.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제1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

### 2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binah2009@chungbuk.ac.kr)

■ **key words**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s,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Latent profile analysis

## I. 서론

가족구조의 변화와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더욱이 지난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 및 하향화되어,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가정양육이 가능한 가정의 영아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보편화 되었다. 실제로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영아의 0세는 24.9%, 1세 85.2%, 2세 92.8%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3).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발달이 일어나는 영아기는 개별적으로 집중된 관심을 동반한 양육자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다(Recchia et al., 1998). 따라서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친숙한 가정을 벗어나 낯선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어린이집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영아에게 집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이 바뀌는 급격한 전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발달적으로 어려운 과업으로, 실제 많은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숙경, 문혁준, 2010; 장은미, 2008). 2021년 보육실태조사(김은설 외, 2021)에 따르면 영유아의 부모에게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4.4%로 상당수 보고되었고 퇴소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질문한 결과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라는 응답이 7.3%로 많은 영유아의 퇴소 이유가 어린이집 부적응임을 시사하였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이용 영아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영아가 성공적으로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은 보육현장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생애 초기의 영아는 환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 탐색을 즐기고, 새로운 환경에 긍정적인 적응을 하게 된다(임민영, 이강이, 2020). 때문에 영아의 순조로운 어린이집 적응 경험은 개인이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인 기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othbart, 2011; Shiner & Caspi, 200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가 새로운 환경과 사람에 호기심이 많아 접근성 높은 경우(박수경 외, 2012; 송애란 외, 2015; Lewis, 1989; Zajdeman & Minnes, 1991), 생리적 리듬이 규칙적인 기질을 가진 경우(김진옥, 2014; 배정인, 2014), 어린이집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영아가 기질적으로 사회성과 주의집중성이 높은 경우에도 학기 초 어린이집 적응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이경님, 유혜선, 2014). 반면 부정적인 기분을 자주 표현하거나 반응성이 높은 영아는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이고,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아, 권민균, 2005; 송애란 외, 2015; 장은미, 2008). 특히 기질의 하위차원 중 활동성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나타난 결과(이경님, 유혜선, 2014; Parker-Cohen & Bell, 1988)와 새로운 기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특성으로 상반되게 보고된 결과(김진아, 권민균, 2005; Barron & Earls, 1984)가 있으며, 임민영과 이강이(2020)의 최근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의 적응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기질과 기관 적응 간의 관계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유형과 변화 양상을 영아의 기질이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개별 영아의 인구학적 특성과 어린이집 이용 특성, 어머니 및 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여 어린이집 적응의 추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대체로 적응을 잘 하였으며(강경화, 2013; 구수연, 2005; 류경, 2000),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적인 모습을 보였다(박정화, 나종혜, 2017; 송애란 외, 2015; 이명희, 전인옥, 2020). 영아가 재원 경험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스트레스가 비교적 낮은 반면 어린이집 1일 이용시간이 긴 경우 영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경 외, 2012; 송지나, 2016). 어머니 특성으로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영아는 어린이집 적응과 어머니와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초기 적응 격리불안이

감소하였으며(김희진, 2009; 이혜상, 2003)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관심을 덜 기울이고 실질적 육아 기술의 미흡하고(도현심 외, 2014),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정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이정윤, 장미경, 2009). 보육교사의 학력과 경력이 높은 경우 전문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이경례, 문혁준, 2013; 이순영, 2009; 박은미, 이석순, 2013), 교사 효능감과 역할수행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박창현, 나정, 2012; 변길희, 김나림, 2010; 이지영, 문혁준, 2015). 또한 교사가 미혼인 경우 기혼 교사에 비해 교직전문성을 더 높게 나타냈다(이은미,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성별, 재원 여부, 1일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우울 및 교사의 학력, 경력, 자녀양육경험을 통제하였다.

한편 어린이집 적응은 학기 초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보육프로그램에서도 대다수의 영아는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인 어린이집에 적응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다(김명순 외, 2013). 어린이집 평가에서도 신입 영유아의 적응을 위해 안내문과 오리엔테이션 등을 제공하고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을 지표에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2). 이에 보육 현장에서는 학기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1~2주가량의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영아의 경우 적응 프로그램 기간을 유아에 비해 더 길게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김현주, 2010), 통상적으로 1개월 가량이 적응 프로그램 기간으로 실시된다(박선준, 김성원, 2017). 이 과정에서 영아의 적응 과정은 개별 영아의 특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이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적응과정 중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거나(정효진, 최현숙, 2019), 적응의 한 시점만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문애현, 조안나, 2018; 배미연, 이순복, 2014). 일부 선행연구에서 적응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있으며(신희남, 조복희, 2012; Ahnert et al., 2004), 최근 신나리와 조우리(2020)가 영아의 적응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적응 수준의 전반적인 유형과 추이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장희선(2020)은 1학년에는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 ‘낮은 교사적응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된 적응의 잠재집단이 4학년이 되어서는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적응의 유형도 발달하며,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 및 교사의 특성 또한 이러한 적응 유형의 발달에 관계됨을 밝혀, 잠재전이분석과 같이 시기에 따른 유형의 전환 패턴이 적응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과 적응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학기 중반 시점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을 추적하여 단기종단 자료를 수집하고, 시점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유형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시점의 잠재집단을 각각 파악하고,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변화할 때 잠재집단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영아가 초기에 어린이집에 보인 적응 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유형과 변화 양상을 영아의 기질이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

에 근거하여 개별 영아의 인구학적 특성과 어린이집 이용 특성, 어머니 및 교사의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여 어린이집 적응의 추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영아가 어린이집에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과 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의 학기초와 학기중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잠재계층유형의 적절한 분류는 무엇이며, 잠재계층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따른 잠재계층의 전이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잠재계층과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세종 및 충청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0~2세반에 재원 중인 영아315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담임교사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4월과 6월에 두 차례 평정하였으며, 어머니는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 자신의 우울을 평정하였다. 이를 위해 섭외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8개소, 직장어린이집 9개소, 민간 7개소, 가정 8개소로, 총 42개소의 어린이집을 통해 839명의 영아 가정에 연구를 소개하는 설명서가 송부되었으며, 총 350명의 어머니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영아가 어린이집을 중간 퇴소하거나 담임교사가 퇴사 경우, 어머니의 응답 자료라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15명의 영아에 대한 자료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영아와 어머니, 교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영아의 평균 월령은 26.3개월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유사하였다. 출생순위는 둘째의 외동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으로 높았으며, 1/4 가량만이 신입원아에 해당하였다. 어머니는 평균 연령이 34.7세였으며, 학력의 경우 과반이 4년제졸이고, 취업모의 비율 또한 70%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학력 취업모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담임교사는 평균 연령이 32.9세로, 최종학력은 4년제와 2/3년제가 각각 40%를 차지하였다. 평균 경력은 4년 이상이었으며,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5.8%로 보고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i>n</i> (%) 또는 <i>M</i> ( <i>SD</i> )	구분	<i>n</i> (%) 또는 <i>M</i> ( <i>SD</i> )	구분	<i>n</i> (%) 또는 <i>M</i> ( <i>SD</i> )
아동 ( <i>N</i> =315)		어머니 ( <i>N</i> =315)		교사 ( <i>N</i> =134)	
월령(개월)	26.3( 7.8)	연령(세)	34.7( 4.0)	연령(세)	32.9( 9.3)
성별		학력		학력	
남	58(50.2)	고졸	28( 8.9)	고졸	11( 8.2)
여	157(49.8)	2/3년제 졸	75(23.8)	2/3년제 졸	56(41.8)
출생순위		4년제 졸	173(54.9)	4년제 졸	60(44.8)
외동	116(36.8)	대학원 졸	39(12.4)	대학원 졸	7( 5.2)
첫째	43(13.6)	취업 여부		영아반 경력(개월)	49.3(43.4)
둘째	121(38.4)	취업	228(72.4)	자녀양육 경험	
셋째 이상	35(11.1)	미취업	87(27.6)	있음	48(35.8)
재원여부		주양육자		없음	86(64.2)
신입원아	74(23.5)	어머니	280(88.9)	재직 기관 <sup>2)</sup>	
재원아	241(76.5)	아버지	10( 3.2)	공공보육 어린이집	88(65.7)
기관 이용시간 <sup>1)</sup>	8.3( 1.5)	친인척/도우미	25( 7.9)	그 외 어린이집	46(34.3)

주1. 1일 기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임.

주2. 공공보육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직장, 그 외 어린이집에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포함된 수치임.

## 2. 측정도구

### 1)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신나리와 윤현정(201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교사용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척도(Childcare Adaptation Scale for Infants and Toddlers: CASIT)’를 사용하였다. CASIT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가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서 응답일을 기준으로 2주간 어떤 적응 특성을 보이는지 교사가 평정하는 설문 조사 방식의 척도로, 집단생활 적응, 부정적 행동, 긍정적 정서, 규칙적 기본생활, 활동성/흥미 및 또래상호작용의 6개 영역,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개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이집에 적응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  값의 경우, 1차 어린이집 적응은 집단생활 적응 .93, 부정적 행동 .88, 긍정적 정서 .93, 규칙적 기본생활 .65, 활동성/흥미 .87, 또래상호작용 .86으로 나타났으며, 2차 어린이집 적응은 집단생활 적응 .93, 부정적 행동 .88, 긍정적 정서 .93, 규칙적 기본생활 .65, 활동성/흥미 .83, 또래상호작용 .82로 나타나, 규칙적 기본생활에서 다소 낮은 내적합치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 2) 기질

영아의 기질은 이가영(2019) 및 이가영과 최은실(2019)의 12-35개월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영아 기질 척도(Toddlerhood Temperament Inventory: TT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Thomas와 Chess(1977)의 기질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권을 고려하여 8개의 하위차원으로 제작된 타당화 척도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리커트 척도로 개발되었으며,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를 어머니가 평정하는 설문 조사 방식의 척도이다.

TTI의 하위차원은 영아의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의 정도를 측정하는 활동성, 생리적인 주기의 규칙적인 정도를 측정하는 규칙성,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접근 혹은 회피의 정도를 측정하는 접근-회피,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 등의 자극에 대해 적응하는 정도인 적응성, 긍정 혹은 부정에 관계없이 영아가 어떠한 자극에 반응하는 수준인 반응강도, 부정정서의 강도를 나타내는 정서성, 방해가 있더라도 특정 활동을 지속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주의 지속성, 신체 감각의 민감한 정도를 측정하는 감각 민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감각 민감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가 .40으로 매우 낮게 산출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적응성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개념적으로 동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6개 하위차원의 3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활동성 .60, 접근성 .82, 반응강도 .59, 정서성 .83, 주의 지속성 .72, 규칙성 .76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 3) 통제변수

주요 변인 이외에 통제 변수로 투입된 변수는 영아의 경우 성별과 월령, 현재 재원 중인 어린이집의 이전 연도 재원 여부 및 기관 이용시간이며, 어머니 변수로는 취업 여부와 우울, 교사 변수로는 학력과 경력이 선정되었다. 이 중 영아의 성별은 남아 1, 여아는 0으로, 영아의 재원여부는 신입생 1, 재원생 0으로 코딩하였다. 기관이용시간의 경우 교사가 응답한 영아의 평균 등원시간과 하원시간을 이용하여 1일 평균 이용시간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경우, 취업 여부는 취업모를 기준 집단인 0으로 코딩하였고,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Cox et al.(1987)가 개발하고 김용구 외(2008)가 번안하고 표준화한 검사도구인 ‘한국판 출산 후 우울증 척도(Korean version Edinburgh Postpartum Depression Scale: K-EPDS)’를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1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이다.

교사 관련 통제변인 경우, 학력은 고졸 1, 2/3년제졸 2, 4년제 대졸 3, 대학원 졸업 4로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경력은 총 보육경력을 개월수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사의 자녀양육경험은 자녀양육경험이 없는 경우를 1, 있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 3. 자료수집절차

###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문장의 이해도,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임의로 선정된 청주시 소재 어린이집의 0~2세 영아의 어머니 9명과 해당 담임교사 3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어머니 설문문의 경우 약 10~15분, 교사의 경우 영아당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조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문항 또한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본 조사

본 조사는 소속기관 생명심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IRB No. CBNU-202110-HR-0190) 세종 및 충북의 3개의 중소도시에서 임의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채용 중인 영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원장을 섭외하였으며, 원장이 동의한 경우 교사를 섭외하기 위해 신학기 시작 전인 2022년 2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연구에 대하여 대면으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확보하였다.

담임교사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반을 대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어머니 섭외를 시작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연구의 일정과 목적이 정리된 어머니용 모집문건을 어린이집을 통해 배포하였다.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어머니는 모집문건에 제시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후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 및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설문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어머니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영아에 한해 담임교사는 어린이집 적응 수준을 총 2회 평가하였다. 어린이집 적응 평가는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이 완료된 4월에 1차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1차 평정 시점 기준 2개월 후에 2차 평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 교사에게 각 평정 시점에 맞춰 확인 문자를 보내 응답 누락을 방지하였으며, 2차 평정이 완료된 이후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먼저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 변인의 기술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학기 초와 중반에 어떤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며, 시점에 따라 개인이 상이한 집단으로 전이할 확률 추정은 Mplus 8.0을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 검증 및  $F$ 검증을 실시하여 예측변인 탐색과 잠재집단의 특성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모형 검증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어린이집 적응과 주요 예측 변인들의 기술적 특성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새 학기가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1차 시기의 어린이집 적응 점수는 부정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하위차원에서 보통인 3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 측정 시기인 6월에는 부정적 행동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그 외 하위차원은 점수

가 증가하여, 4월에 비해 6월에는 적응을 대체로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은 반응강도, 주의지속성과 규칙성이 3점 이상으로 높게 평정된 반면, 활동성과 접근성, 정서성은 2점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머니의 우울은 평균 7.32점으로, 정상 수준인 12점 이하에 해당하였다.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 간 상관은 예측한 방향과 동일하게 부정적 행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영아의 기질 하위차원 간 상관은 활동성과 접근성, 활동성과 정서성, 반응강도와 정서성, 주의 지속성과 규칙성이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활동성과 주의지속성, 활동성과 규칙성, 접근성과 정서성, 정서성과 주의 지속성은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차원과 기질 하위차원 간의 상관은 1차에서 집단생활과 주의 지속성, 부정적 행동과 정서성, 긍정적 정서와 접근성, 활동성/ 흥미와 접근성, 활동성/흥미와 주의지속성 간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적응 2차에서 집단생활과 주의 지속성, 규칙적 기본생활과 규칙성, 또래상호작용과 규칙성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반면 영아의 부정적 행동과 주의 정서성은 1차와 2차 모두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우울은 어린이집 적응의 모든 하위차원 및 정서성을 제외한 영아 기질의 하위차원과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 1. 잠재계층의 분류 및 특성

### 1) 잠재계층의 수 결정

학기 초와 적응 기간이 종료된 이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유형화되는 잠재계층을 알아보기 위해, 4월과 6월 적응 점수에 대해 잠재계층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 수를 2개부터 증가시키면서 계층 수 결정에 필요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표 3 참조).

먼저 학기 초에 해당하는 4월 어린이집 적응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준거지수에 해당하는 AIC, BIC 및 SABAC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분류 정확성에 해당하는 Entropy는 모두 0.8을 상회하였으나 4계층 모형에서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BLRT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지만, LMR은 4계층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별 적합도 산출을 종료하였다. 이에 4월에 평가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3계층 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 = 315)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M	3.26	2.16	3.73	3.92	3.74	3.44	3.92	2.15	4.26	4.29	4.24	4.00	2.42	2.79	3.15	2.19	3.16	3.18		
SD	1.11	.99	1.07	.86	.94	.95	.95	.99	.85	.71	.74	.80	.69	.65	.46	.57	.62	.54		

\*p<.05, \*\*p<.01, \*\*\*p<.001

주1. ① 집단생활 적응 1차 ② 부정적 행동 1차 ③ 긍정적 정서 1차 ④ 규칙적 기본생활 1차 ⑤ 활동성/흥미 1차 ⑥ 또래 상호작용 1차 ⑦ 집단생활 적응 2차 ⑧ 부정적 행동 2차 ⑨ 긍정적 정서 2차 ⑩ 규칙적 기본생활 2차 ⑪ 활동성/흥미 2차 ⑫ 또래 상호작용 2차 ⑬ 활동성 ⑭ 접근성 ⑮ 반응강도 ⑯ 정서성 ⑰ 주의지속성 ⑱ 규칙성  
 주2. 적응은 5점 척도, 기질은 4점 척도의 수치임.

한편 6월 어린이집 적응의 경우, 계층 수가 증가하면서 AIC, BIC 및 SABAC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6계층 모형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ntropy는 계층 수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모두 0.8을 상회하였고, 3계층 모형에서 가장 높았다. BLRT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으나, LMR은 6계층 모형에서 유의도가 0.74로 산출되어, 모형 탐색을 종료하였다. 결정계수만을 살펴보면 2~5계층 모형이 모두 적절하였으므로, 최적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분포와 해석 가능성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5계층 모형의 경우 전체 연구 대상의 수 대비 5% 내외의 집단이 포함되어, 사례수가 20명 미만인 집단이 존재하였다. 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 예측 변인 탐색을 위한 분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잠재계층의 규모가 25명 이하거나 잠재계층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우연적으로 유형화된 집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Berlin et al., 2014), 가장 간명한 2계층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영아 어린이집 적응 잠재계층의 적합도 지수

구분	4월 어린이집 적응 잠재계층			6월 어린이집 적응 잠재계층				
	2개	3개	4개	2개	3개	4개	5개	6개
AIC	4814.25	4650.75	4599.91	4256.16	4102.64	4040.85	4004.66	4521.61
BIC	4885.55	4748.32	4723.75	4327.46	4200.21	4164.69	4154.77	4697.98
SABIC	4825.29	4665.85	4619.08	4267.19	4117.74	4060.02	4027.90	4548.91
Entropy	0.83	0.84	0.81	0.84	0.88	0.84	0.81	0.83
LMR( <i>p</i> -value)	0.00	0.00	0.17	0.00	0.07	0.02	0.07	0.74
BLRT( <i>p</i> -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분류율(%)								
계층1	46.34	13.01	27.30	33.33	40.00	5.39	17.78	11.11
계층2	53.65	44.76	19.04	66.66	54.60	50.15	15.87	5.39
계층3		42.22	13.65		5.39	20.31	4.76	15.55
계층4			40.00			24.12	43.17	30.47
계층5							18.41	24.76
계층6								12.69

## 2) 잠재계층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특성

영아의 새 학기 어린이집 1, 2차 적응 수준에 따른 분류된 계층이 지표 변인인 집단생활적응, 부정적 행동, 긍정적 정서, 규칙적 기본생활, 활동성/ 흥미 및 또래상호작용별로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영아의 4월 어린이집 적응의 경우, 계층 1은 전체의 13.5%에 해당하는 영아 41명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긍정적 적응을 나타내는 하위차원 모두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점수가 낮았다. 부정적 행동의 경우 계층 2보다 평균 점수는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적응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에 해당하였다. 계층 2는 44.2%에 해당하는 영아 141명으로, 적응의 하위차원별 적응 수준이 대체로 3개 집단 중 중간이었으며, 점수 또한 보통 수준인 3점대에 해당하였다. 계층 3은

적응 부정적 행동을 제외한 하위차원별 수준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점수 또한 4점 이상으로 나타나, 가장 적응적인 집단이었다. 이에 계층 1을 ‘부적응적 집단’, 잠재계층 2는 ‘일상적 집단’, 잠재계층 3은 ‘적응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6월 어린이집 적응의 경우, 계층 1은 적응 수준이 대체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집단으로 전체의 33.4%(105명)이 이에 해당하였다. 적응 점수는 대부분 3점 내외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고, 1차 시기인 4월과 비교해볼 때 ‘부적응적 집단(1차)’ 및 ‘일상적 집단(1차)’의 적응 수준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2는 계층 1에 비해 부정적 행동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생활 적응, 긍정적 정서, 규칙적 기본생활, 활동성/흥미 및 또래 상호작용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적응적인 집단에 해당하였다. 이에 2차 시기의 계층 1은 ‘일상적 집단’, 잠재계층 2는 ‘적응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4. 잠재집단별 어린이집 적응 하위차원별 평균 차이 검증 (N = 315)

구분	4월 어린이집 적응			F	6월 어린이집 적응		t
	계층1. 부적응적 집단 (n = 41)	계층2. 일상적 집단 (n = 141)	계층3. 적응적 집단 (n = 133)		계층1. 일상적 집단 (n = 105)	계층2. 적응적 집단 (n = 210)	
집단생활 적응	1.75 <sup>c</sup>	2.90 <sup>b</sup>	4.10 <sup>a</sup>	169.15***	2.96	4.39	-17.72***
부정적 행동	2.16 <sup>ab</sup>	2.42 <sup>a</sup>	1.88 <sup>b</sup>	10.91***	2.65	1.90	6.68***
긍정적 정서	2.20 <sup>c</sup>	3.47 <sup>b</sup>	4.49 <sup>a</sup>	154.75***	3.63	4.57	-9.80***
규칙적 기본생활	3.18 <sup>c</sup>	3.63 <sup>b</sup>	4.47 <sup>a</sup>	73.32***	3.69	4.59	-12.01***
활동성/흥미	2.21 <sup>c</sup>	3.47 <sup>b</sup>	4.50 <sup>a</sup>	299.89***	3.55	4.58	-13.63***
또래 상호작용	1.94 <sup>c</sup>	3.12 <sup>b</sup>	4.24 <sup>a</sup>	95.54***	3.26	4.37	-13.54***

\*\*\*p < .001.

## 2.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따른 잠재집단의 전이 양상

학기 초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잠재계층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전이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1차 ‘부적응적 집단’에 해당하는 영아의 경우 2차인 6월에 ‘일상적 집단’으로 전이한 경우가 82.9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적응적 집단’으로 전이하는 비율은 17.07%에 그쳤다. 한편, 1차 어린이집 적응이 ‘일상적 집단’에 해당하는 영아 중 어린이집 적응 2차에서도 여전히 ‘일상적 집단’인 경우는 44.68%인데 반해 ‘적응적 집단’으로 전이하는 경우는 55.32%로 그 비율이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어린이집 적응 평가 시 ‘적응적 집단’에 해당하는 영아 중 2차 어린이집 적응에서도 ‘적응적 집단’인 경우는 93.9%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일상적 집단’으로 전이하는 경우는 6.01%에 불과하였다.

표 5.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전이 양상

(N = 315)

구분		6월 어린이집 적응	
		일상적 집단(n = 105)	적응적 집단(n = 210)
4월 어린이집 적응	부적응적 집단(n = 41)	82.93(n = 34)	17.07(n = 7)
	일상적 집단(n = 141)	44.68(n = 63)	55.32(n = 78)
	적응적 집단(n = 133)	6.01(n = 8)	93.9(n = 125)

주. 단위는 %, 괄호 안은 명수임.

### 3. 영아의 기질이 잠재집단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의 새 학기 어린이집 적응의 1차 시기와 2차 시기의 잠재집단의 유형 조합은 총 6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집단의 사례수가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며, 내용적으로 탐색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은 4개 집단으로 ‘부정적(1차)-일상적(2차)’, ‘일상적(1차)-일상적(2차)’, ‘일상적(1차)-적응적(2차)’, ‘적응적(1차)-적응적(2차)’ 집단을 선정하였다. 이들 유형에 어떤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4개 집단 중 적응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영아 기질의 하위차원별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투입된 예측 변인으로 영아 특성은 영아의 기질 하위차원 활동성, 접근성, 반응강도, 정서성, 주의지속성 및 규칙성이며, 어머니 특성은 우울, 교사 특성은 학력과 경력이었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인 영아의 월령, 성별, 재원여부를 통제변인으로 추가 투입하였다.

표 6. 영아의 기질이 잠재집단의 전이에 미치는 요인

변인	적응적-적응적 (n = 125)			일상적-일상적 (n = 63)			부적응적-일상적 (n = 34)		
	B	SE	Odd Ratio	B	SE	Odd Ratio	B	SE	Odd Ratio
영아 월령	.00	.02	1.00	.01	.03	1.01	-.04	.03	.95
영아 성별	1.16***	.32	3.21	.57	.37	1.78	.13	.48	1.14
영아 재원여부	1.26**	.44	3.54	.71	.49	2.05	.40	.56	1.50
영아 이용시간	-.02	.11	.97	-.12	.13	.87	-.70**	.21	.49
어머니 취업여부	-.10	.38	.90	-.34	.41	.71	.06	.51	1.07
어머니 우울	-.02	.04	.97	.02	.04	1.02	-.05	.06	.94
교사 학력	.26	.23	1.30	-.07	.26	.92	-.15	.32	.85
교사 경력	.00	.00	1.00	.01*	.00	1.01	.01**	.00	1.01

표 6. 계속

변인	적응적-적응적 (n = 125)			일상적-일상적 (n = 63)			부적응적-일상적 (n = 34)		
	B	SE	Odd Ratio	B	SE	Odd Ratio	B	SE	Odd Ratio
영아 활동성	-.27	.24	.76	.39	.28	.67	-1.10**	.38	.33
영아 접근성	.52*	.24	1.69	.45	.28	1.57	.27	.35	1.32
영아 반응강도	-.21	.36	.80	-.36	.41	.69	-.12	.54	.88
영아 정서성	.10	.30	1.10	.11	.36	1.11	.57	.48	1.77
영아 주의지속성	-.29	.29	.74	-.47	.33	.62	-.83*	.39	.43
영아 규칙성	-.36	.32	.69	-.28	.36	.75	-.85	.46	.42

주1.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준집단은 ‘일상적-적응적 집단’(n = 78)임.

주2. 영아 성별은 여아가 기준집단임.

주3. 영아 채용여부는 신입원아가 기준집단임.

주4. 어머니 취업여부는 취업모가 기준집단임.

주5. 교사 자녀양육경험은 유자녀 교사가 기준집단임.

\*p < .05, \*\*p < .01, \*\*\*p < .001.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에 비해 ‘적응적(1차)-적응적(2차) 집단’을 비교한 결과, 영아의 성별과 채용여부, 기질의 하위차원 중 접근성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에 비해 남아가, 신입원아에 비해 채용아가, 기질적으로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경우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에 비해 ‘적응적(1차)-적응적(2차)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에 비해 ‘일상적(1차)-일상적(2차) 집단’의 경우 교사의 경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일상적(1차)-일상적(2차)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부적응적(1차)-일상적(2차) 집단’인 경우를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영아의 활동성, 주의 지속성, 규칙성 및 교사의 경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가 기질적으로 주의지속성과 규칙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고,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에 비해 ‘부적응적(1차)-일상적(2차)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0~2세 반 영아의 새 학기 1~2차 어린이집 적응 유형과 유형의 종단적인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잠재계층 및 잠재계층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개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리엔테이션이 종료된 직후인 4월에 영아의 1차 어린이집 적응 수준에 대해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아의 적응수준이 대체로 낮은 ‘부적응적 집단’, 영아의 적응 수준이 보통 수준으로 일정 수준 적응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상적 집단’, 영아의 적응 수준이 높은 ‘적응적 집단’의 3개의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학기 중반이 지난 6월에 영아의 2차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잠재계층 분석 결과, 대부분이 영아의 적응 수준이 대체로 보통 이상인 ‘일상적 집단’과 영아 적응 수준이 높은 ‘적응적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2차 시기에 ‘적응적 집단’에 해당하는 영아의 수가 ‘일상적 집단’의 두 배 가량이었으며, 부적응적 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영아가 학기 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학기 중반이 되면 어린이집이라는 환경과 일과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적응의 다양한 하위차원 중 긍정적 차원에 해당하는 집단생활적응, 긍정적 정서, 규칙적 기본생활, 활동성/흥미, 또래상호작용 수준뿐 아니라 부정적 행동 수준도 증가하는 점이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1차 어린이집 적응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부적응적 집단’에 비해 ‘일상적 집단’의 부정적 행동 평균 점수 높아, 다른 영아를 방해하거나 던지거나 부수기 등의 행동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속상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과도하게 보이는 등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실제로 부정적 정서 및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가 강한 경우 사회적 유능성이 낮으며(Murphy & Eisenberg, 1996), 공격성, 도움 추구, 부정성과 같은 부적응적 사회적 행동을 보이거나(Rothbart et al., 1994) 만족지연이나 조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밝혀진 바 있다(Rubin et al., 2014). 때문에 부정적 정서가 높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은 친사회적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행동하여 성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평가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성 그 자체가 기능적 또는 역기능적이라 할 수 없으며, 표현방식에 따라 적응적일 수도,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는 하정희(2017)의 제안과 같이 논의가 필요한 점임을 시사한다. 특히 영아가 부정적 행동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인 애착으로 인해 주 양육자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애착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Bowlby, 1969), 부정적 정서를 표출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 또한 자아 확립으로 인한 영아기 자율성 및 독립심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곽승주, 2009; Lewis & Ramsay, 2004). 특히 영아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사용하여 영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며(Parkinson, 1995),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이해받는 것을 통해 정서를 조절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Eisenberg et al., 1996; Timmers et al., 1998).

이에 반해 보육현장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의 조절 및 통제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은 집단생활로 인한 사회화의 압력이 반영이 우려된다. 또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평가할 때 성인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없이 어울리고 순응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신나리, 윤현정, 2016) 걸음마기 전후 자율성이 발달함에 따라 주양육자의 요구에 도전하는 상황이 불순응 행동으로 성인에게 지각되는지를(Schaffer & Crook, 1980)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교

사가 영아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서교육의 지도방안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 일상생활에서 영아의 감정이 수용되고 자연스러운 정서표출이 허용되는 일과 구성이나 놀이 제공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1~2차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전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적응 1차에서 하위차원에 대체로 점수가 낮았던 ‘부적응적 집단’의 대다수(82.93%)와 ‘일상적 집단’의 반수 가량(44.68%)이 적응 2차에서 ‘일상적 집단’으로 전이하여, 다수의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예후가 긍정적임을 시사하였다. 특히 적응 1차 시기의 ‘부적응적 집단’ 중 17.07%와 ‘일상적 집단’의 55.32%가, 적응적 집단의 93.9%가 2차 적응적 집단으로 전이되었다. 즉 적응 1차의 적응을 시작한 영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로 2차 시점에 적응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는 일상적 혹은 적응적 집단으로 전이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소 1개월과 3개월 후 영아의 또래상호작용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또래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하지영과 서소정(2012)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영아의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 상호작용 기술의 습득을 하며 적응력이 높아졌음을 보고한 Holmberg(1980)의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초기 부적응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염려하였던 부모님과 교사에게 학기 초 부적응이 추후 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질적 적응 과정을 보여주므로 부모 상담 및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영아의 새 학기 어린이집 적응 잠재계층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아의 활동성, 접근성 및 주의지속성, 인구학적 요인으로 영아의 성별, 재원여부 및 이용시간, 교사의 경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아의 반응강도, 정서성 및 규칙성은 어린이집 적응 잠재계층 유형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영아의 기질적으로 활동성 수준이 낮은 경우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보다는 ‘부적응적(1차)-일상적(2차)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 활동성이 낮은 경우 어린이집 등원 초반의 적응 뿐만 아니라 학기 중반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활동성이 높은 경우 외현적 문제행동이 나타날 경향이 높으며(나양균 외, 2006; 신애선 외, 2015) 수용언어와 같은 사회성 관련 언어 수준은 낮으므로(조유나, 홍지은, 2010), 기질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것이 다른 영아와 함께 생활하는 집단 맥락인 어린이집에서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도 활동성이 높은 경우 협조성과 안정성이 줄어들어 다른 유아의 활동에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홍계옥, 2001). 그러나 유아 대상의 연구 중 높은 활동성이 기관의 적응력을 높이고 또래에게 수용되고 인기가 있는 반면(Klein, 1982; Parker-Cohen & Bell, 1988), 활동성이 낮은 경우 기관 내 규칙 순응 정도가 낮거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여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결과 또한 보고되고 있다(박호선, 한유미, 2001; 전일우, 2012; Barron & Earls, 1984; Klein, 1982). 따라서 영아를 대상으로 기질적인 활동성이 기관에서의 적응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기질적인 접근성이 높은 경우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보다는 ‘적응적(1차)-적응적(2차)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은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질적인 성향

으로, 접근성 수준이 높은 영아는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가 낯선 자극에 긍정적 반응이 보이는 경우 어린이집의 적응력이 높다고 밝힌 조영아와 김수영(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새로운 자극을 철회하지 않고 흥미를 보이는 영아는 전형적인 순환 기질에 해당한다. 활동성이 높은 영아의 경우 일상생활 중의 많은 움직임으로 인해 낯선 자극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때 영아가 접근성이 높은지 또는 회피 및 철회의 성향을 갖는지에 따라 적응에 대한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활동성은 영아가 다른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긍정적 요소와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요소로 모두 작용할 수 있으므로(Billman & McDevitt, 1980), 교사가 개별 영아의 활동성 수준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주의지속성 또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일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의 기질과 초기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이현숙과 조혜진(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해를 받아도 활동을 계속하는 지구성이 높은 영아는 어린이집 초기 적응을 잘하는 반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쉽게 바꾸는 주의분산도는 적응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지구성 및 주의분산도는 조영아와 김수영(2009)의 연구에서도 또래상호작용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의 주의력 관련 특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아의 집중력 관련 연구에서는 영아가 다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하며 집중하는 능력이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며(박지영, 2006), 기질적인 지속성이 사회·정서적 유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양균 외, 2006).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의집중력이 기관적응에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된다(노민정, 박혜원, 2011; 신수진, 김현명, 2018). 따라서 영아의 주의지속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달 수준과 연령 및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으로 영아의 성별, 재원여부 및 이용시간과 교사의 경력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영아의 성별과 재원여부는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에 비해 ‘적응적(1차)-적응적(2차)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이는 여아에 비해 남아가, 신입원아보다는 재원아가 학기 초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남아와 신입원아 모두 2차 시기에서는 적응적 집단에 속하므로, 학기 초 새로운 환경에 적응 초기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적응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아의 성별이나 재원여부는 오리엔테이션 및 적응 기간에 교사가 개별적인 지원 시 필요한 정보이기는 하나,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더 많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특성일 뿐 위험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부적응적(1차)-일상적(2차) 집단’에 비해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변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김정화, 이재연, 2011; 박성혜, 김광웅, 2003; 하영례, 정효은, 2009) 귀가욕구와 스트레스 행동이 증가하며(송지나, 2016; 조혜선, 2001)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가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 비해 코티졸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여(송지나, 2016) 본 연구 결과와 대비되는 결과이다. Thornburg et al.(1990)은 원 이용시간에 따라 유아의 공격성, 또래와의



상호작용, 순응적 행동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반면, 영아는 보육시간이 길수록 불안수준이 높아졌으며(NICHHD, 2001) 장시간 보육 경험을 한 유아는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NICHHD, 1998) 보육의 질, 가족 요인, 어머니의 민감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경우에도 장시간 보육시간의 부정적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고하여(NICHHD, 2003)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따른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즉 영아가 어린이집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용시간을 길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응이 순조로워 이용시간을 길게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어린이집 적응수준의 두 변인 간 상보적 관계를 확인하는 자기회귀 교차지연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장시간 보육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영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며 성인 중심이 아닌 영아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다방면으로 적응을 평가해야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교사 변인 중 교사의 경력은 경력이 높을수록 기준집단인 ‘일상적(1차)-적응적(2차) 집단’보다 ‘부정적(1차)-일상적(2차) 집단’에 속하거나 ‘일상적(1차)-일상적(2차) 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변인이다. 경력이 높은 교사가 다양한 현장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경력이 길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았으며(김송이, 2015; 이현주, 2015) 적절한 상호작용을 보인다는 결과(권미성, 문혁준, 2013; 박창현, 나정, 2012) 와도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영아반만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경우 경력이 높은 교사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재직기관 또한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인 비율이 높았다. 이와 상대적으로 경력이 낮은 교사는 대체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고 재직기관이 국공립 또는 직장 어린이집이었다. 이는 경력이 높은 교사는 타 전공이나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하였거나(채혜선, 2007), 연령이 많고(김현진, 신은수, 2008), 영아반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안선희, 김지은, 2007) 일부 선행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교사의 학력, 경력, 연령, 재직기관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나타난 영향력이 달라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경력이 전문성에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전문성을 담보하는데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좋은 인력이 보육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재교육을 내실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면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로 코호트 효과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측정 시점의 간격을 달리하는 연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 19로 등원을 미루거나 연구 기간 중 퇴소한 영아가 있어, 본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이들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학기 초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등원하며 일정 수준 적응한 영아들에 한해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적응으로 이어진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퇴소한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부적응 과정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보육의 질은 교사의 민감성, 보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의 과정적 질과 함께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크기, 교사의 교육 수준 등과 같은 구조적 질이 영아의 보육에 직·간

접적 영향을 미친다(이미화 외, 2014). 본 연구는 영아 대 교사 비율은 연령차가 크고 법적 사항이어서 고려하지 않았으나 구조적 질 측면에서 연령과 반별 비율을 고려한 영아의 적응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실제 상호작용을 관찰하지 않아 과정적 질 측면에서 보육의 질에 의한 영향력을 설명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영아의 2차례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수준을 유형화하고 변화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잠재전이 분석을 활용한 적응 시점에 따른 개별 영아의 전이하는 확률을 추정하거나 잠재성장분석을 활용한 잠재집단의 이동 및 전이확률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새 학기 어린이집 적응 1차 및 2차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수준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전이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영아 새 학기 어린이집 적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는 개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경화 (2013). 부모-영아 애착, 부모-교사 협력, 그리고 교사-영아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수연 (2005).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송이 (2015). 보육교사의 경력 및 소진과 놀이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481-499. <http://doi.org/10.14698/jkce.2015.11.481>
- 김용구, 허지원, 김계현, 오강섭, 신영철 (2008). 한국판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의 임상적 적용. **신경정신과학회지**, 47(1), 36-44.
- 김명순, 김의향, 이삼범, 박초아, 이미화, 이한영 등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서울: 보건복지부.
- 김은설, 최윤경, 권미경, 최효미, 김나영, 김자연, 박은영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371669&tag=&nPage=1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371669&tag=&nPage=11)
- 김정화, 이재연 (2011). 어린이집의 재원 시간과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관계. **가족환경연구**, 49(9), 121-130.
- 김진아, 권민균 (2005). 영아의 애착 안정성 및 기질과 보육시설 초기 적응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2(4), 177-189.
- 김진옥 (2014). 영유아의 수면양상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2(2), 41-52. <http://doi.org/10.7466/JKHMA.2014.32.2.41>
- 김현주 (2010).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 실시현황. **유아교육학논집**, 14(5), 443-470.
- 김현진, 신은수 (2008).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에 대한 연구-교사의 개인적 변인(연령, 학력

- 및 전공, 자격유형, 과거 직업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5(3), 239-259.
- 김희진 (2009).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영아 초기적응 지도 실태: 국공립과 민간 보육 시설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0(2), 131-157.
- 곽승주 (2009).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2세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및 조절에 관한 문화 기술적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1-29.
- 권미성, 문혁준 (201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전문성 수준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277-296.
- 나양균, 이영환, 한지현 (2006). 만 1세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 능력 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4, 19-36.
- 노민정, 박혜원 (2011). 주의문제 유아와 일반유아의 실행기능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적응. **인지발달장애학회지**, 2(2), 13-35.
-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 류경 (2000). 보육시설 초기적응과정의 영아 행동 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애현, 조안나 (2018).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4), 231-252. <http://doi.org/10.20437/KOAECE23-4-10>
- 박선준, 김성원 (2017). 어린이집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인문사회** 21, 8(4), 983-1010. <http://doi.org/10.22143/HSS21.8.4.50>
- 박성혜, 김광웅 (2003).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4(4), 1-14.
- 박수경, 정미라, 권정윤 (2012). 2세 영아의 어린이집 학기 초 적응기의 코티졸 수준과 관련 변인.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485-501.
- 박은미, 이석순 (2013).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수준과 보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4), 179-200.
- 박정화, 나종혜 (2017).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7(1), 17-35. <http://doi.org/10.30528/jolss.2017.7.1.002>
- 박지영 (2006). 영아의 어휘력과 공동주의 집중 및 어머니의 주의공유 방식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현, 나정 (2012). 유아교육기관, 교사 및 유아집단 특성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99-125.
- 박호선, 한유미 (2001). 가정 및 보육기관에서의 규칙에 대한 유아의 순응성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5(2), 113-127.
- 배미연, 이순복 (2014).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교사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2), 339-360.
- 배정인 (2014). 어머니와 영아의 수면문제가 영아의 문제행동 및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 서 모아애착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125-143.
- 변길희, 김나림 (2010).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0(4), 21-34.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2).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어린이집용**.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영아의 기질, 교사의 민감성 및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1), 37-53.
- 송지나 (2016). 기질과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누적 코티솔 수준에 미치는 영향-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른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나리, 윤현정 (2016). 교사용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37(6), 35-56. <http://doi.org/10.5723/kjcs.2016.37.6.35>
- 신나리, 조우리 (2020).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추이의 유형 및 예측 요인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1), 115-143. <http://doi.org/10.14698/jkce.2020.16.01.115>
- 신수진, 김현명 (2018). 유아의 기관적응과 주의집중력, 문제행동, 언어능력 간의관계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2(4), 173-196. <http://doi.org/10.32349/ECERR.2018.08.22.4.173>
- 신애선, 김경후, 유지은 (2015).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3), 173-191.
- 신희남, 조복희 (2012). 어머니의 적응지원전략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29-55.
- 안선희, 김지은 (2007). 영아 및 유아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 근무여건,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47-164.
- 양숙경, 문혁준 (2010).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만 1·2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8(2), 131-146.
- 육아정책연구소 (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연구보고서 2023-0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35&board\\_idx=49615&manage\\_idx=43&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ype=title&yearData=&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35&board_idx=49615&manage_idx=43&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ype=title&yearData=&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
- 이가영 (2019). 영유아 기질 검사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영, 최은실 (2019). 영아 기질 검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12-35개월을 대상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11(4), 291-310. <http://doi.org/10.36431/JPE.11.4.15>
- 이경님, 유혜선 (2014).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교사-영아 관계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3(3), 165-190.
- 이경례, 문혁준 (2013). 영아보육교사의 발달지식, 교사효능감, 전문성 지원환경이 전문성 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3(3), 163-182.
- 이순영 (2009).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근무유형, 학력, 경력, 연령간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

연구, 13(1), 299-317.

- 이명희, 전인옥 (2020). 영아의 성, 연령, 사회정서발달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7(2), 193-213. <http://doi.org/10.22155/JFECE.27.2.193.213>
- 이미화, 엄지원, 정주영 (2014). **영아보육 질 제고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연구보고서 2014-16)**.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30&board\\_idx=28298&manage\\_idx=102&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ext=%EC%98%81%EC%95%84%EB%B3%B4%EC%9C%A1+%EC%A7%88+%EC%A0%9C%EA%B3%A0&rowCount=10&viewPage=1](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30&board_idx=28298&manage_idx=102&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ext=%EC%98%81%EC%95%84%EB%B3%B4%EC%9C%A1+%EC%A7%88+%EC%A0%9C%EA%B3%A0&rowCount=10&viewPage=1)
- 이은미 (2002). 직무수행능력과 현직교육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장미경 (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 이지영, 문혁준 (2015). 기혼영아보육교사의 교직전문성 인식, 일과 가정의 양립갈등, 소진, 자아탄력성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2, 103-125.
- 이현숙, 조혜진 (2009). 영아의 개인 변인과 어린이집의 환경 변인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2), 179-192.
- 이현주 (2015). 보육교사효능감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성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5(4), 93-112.
- 이혜상 (2003).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8(3), 337-354.
- 임민영, 이강이 (2020). 영아의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40(2), 225-245. <http://doi.org/10.18023/kjece.2020.40.2.009>
- 장은미 (2008). 영아의 기질, 조기교육경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에서의 문제행동. **육아지원연구**, 3(2), 33-50.
- 장희선 (2020).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전이와 부모, 교사 예측요인 검증. **교육문화연구**, 26(6), 481-506.
- 전일우 (2012). 어린이집 적응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기질, 또래유능성 및 교사-유아관계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119-138.
- 정효진, 최현숙 (2019). 어머니가 인식하는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 및 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9(3), 99-113. <http://doi.org/10.21213/kjceec.2019.19.3.99>
- 조영아, 김수영 (2009). 영아의 기질 요인에 따른 영아-교사 간 애착 안정성 및 또래 간 상호작용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207-229.
- 조유나, 홍지은 (2010). 영아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에 대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4, 99-117.
- 조혜선 (2001). 어린이집 영유아의 집에 가고 싶은 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채혜선 (2007).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을 고려한 조력 요구 조사. *아동연구*, 20(1), 95-110.
- 하영례, 정효은 (2009). 기관변인에 따른 5세 유아의 문제행동. *한국영유아보육학*, 57, 171-191.
- 하정희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관계에서 정서 억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1), 183-208. <http://doi.org/10.21509/KJYS.2017.11.24.11.183>
- 하지영, 서소정 (2012).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141-166.
-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Ahnert, L., Gunnar, M. R., Lamb, M. E., & Barthel, M. (2004). Transition to child care: Associations with infant-mother attachment, infant negative emotion, and cortisol elevations. *Child Development*, 75(3), 639-650. <http://doi.org/10.1111/j.1467-8624.2004.00698.x>
- Barron, A. P., & Earls, F. (1984). The relation of temperament and social factors to behavior problems in three-year-old children.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25(1), 23-33. <http://doi.org/10.1111/j.1469-7610.1984.tb01716.x>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https://doi.org/10.1093/jpepsy/jst084>
- Billman, J., & McDevitt, S. C. (1980). Convergence of parent and observer ratings of temperament with observations of peer interaction in nursery school. *Child Development*, 51(2), 395-400. <https://doi.org/10.2307/112927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 Cox, J. L., Holden, J. M., & Sagovsky, R. (1987). Detection of postnatal depression: Development of the 10-item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0(6), 782-786. <https://doi.org/10.1192/bjp.150.6.782>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854.x>
- Holmberg, M. C. (1980).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rchange patterns from 12 to 42 months. *Child Development*, 51(2), 448-456. <https://doi.org/10.2307/1129278>
- Klein, H. A.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nd Head Start settings. *The Journal of Psychology*, 112(2), 259-268. <https://doi.org/10.1080/00223980.1982.9915383>
- Lewis, M. (1989). *Culture and biology: The role of temperament*. In R. Zelazo, P., & Barr, R. (Eds.), *Challenges to developmental paradigms: Implications for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 203-223). NY: Psychology Press.

- Lewis, M., & Ramsay, D. (2004). Development of self-recognition, personal pronoun use, and pretend play during the 2nd year. *Child Development, 75*(6), 1821-183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819.x>
- Murphy, B. C., & Eisenberg, N. (1996). Provoked by a peer: Children's anger-related respons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functi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42*(1), 103-124. <http://www.jstor.org/stable/23090522>
- NICHD. (1998). Relations between family predictors and child outcomes: are they weaker for children in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119-1128. <https://doi.org/10.1037/0012-1649.34.5.1119>
- NICHD. (2001). Child-care and family predictors of preschool attachment and stability from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7*(6), 847-862. <https://doi.org/10.1037/0012-1649.37.6.847>
- NICHD. (2003). Early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from 36 months through first grad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6*(3), 345-370. [https://doi.org/10.1016/S0163-6383\(03\)00035-3](https://doi.org/10.1016/S0163-6383(03)00035-3)
- Parker-Cohen, N. Y., & Bell, R. Q.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2), 179-192. [https://doi.org/10.1016/0885-2006\(88\)90021-X](https://doi.org/10.1016/0885-2006(88)90021-X)
- Parkinson, B. (1995). *Ideas and realities of emotion*. London: Loutledge.
- Recchia, S. L., Berr, C. N., & Hsiung, M. (1998). Caregiver perceptions and child-caregiver interactions in a newly inclusive infant child care center.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6*(2), 111-116. <https://doi.org/10.1023/A:1022959514616>
- Rothbart, M. K. (2011). *Becoming who we are: Temperament and personality in development*. NY: Guilford Press.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1), 21-39.
- Rubin, K. H., Hymel, S., Mills, R. S., & Rose-Krasnor, L. (2014). Conceptualizing different developmental pathways to and from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E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ysfunction* (pp. 91-122). NY: Psychology Press.
- Schaffer, H. R., & Crook, C. K. (1980). Child compliance and maternal control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1), 54. <https://doi.org/10.1037/0012-1649.16.1.54>
- Shiner, R., & Caspi, A. (2003).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Measurement,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2-32. <https://doi.org/10.1111/1469-7610.00101>
- Thornburg, K. R., Pearl, P., Crompton, D., & Ispa, J. M. (1990). Development of kindergarten children based on child care arrang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1), 27-42. [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04-K](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04-K)

- Timmers, M., Fischer, A. H., & Manstead, A. S. (1998). Gender differences in motives for regulating emo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74-985. <https://doi.org/10.1177/0146167298249005>
- T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er & Mazel.
- Zajdeman, H. S., & Minnes, P. M. (1991). Predictors of children's adjustment to day-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74(1), 11-28. <https://doi.org/10.1080/0300443910740102>

논문투고 : 24.04.11.  
수정원고접수 : 24.06.24.  
최종게재결정 : 24.08.13.